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산재 조속히 인정하고
전자산업 감시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자산업 백혈병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

2016년 4월 28일(목) 10:00,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강문식 민주노총전북본부 교선부장

민중의례
참석자소개
여는발언 : 이세우 목사(전북녹색연합 대표)
연대발언 : 임자운 변호사(반올림)
산재신청인 편지 낭독 : 박진승 노무사(민주노총전북본부, 위임인)
규탄발언 : 윤종광 민주노총전북본부 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산재신청서류 접수

전자산업 백혈병 산재 인정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북시민사회단체(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민중연합당전북도당, 사회변혁당전북도당, 생명평화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6.15전북본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 전북노동복지센터,
전북녹색연합,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문>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산재 조속히 인정하고 전자산업 감시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북 완주 H사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초반 노동자에게 백혈병이 발병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2012년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 2015년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현재 투병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노동자의 산재신청을 하며 조속한 산재 인정을 촉구합니다.

피해 노동자는 H사에서 전극보호제, 세정제 등을 생산했고, 이 제품은 주로 삼성전자로 납품되어 LCD등 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무슨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들 물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용액이 눈과 피부에 튀기도 하고, 분진을 호흡기로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장비와 안전교육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H사에서 발생한 백혈병 피해는 삼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H사는 삼성 전자에 제품을 대량으로 납품해왔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의 공장 증설계획이 발표되면 H사의 매출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피해노동자는 삼성이 요구하는 납품 물량을 맞추기 위해 월 100시간 이상 잔업, 밤샘 노동을 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노출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중 백혈병 및 희귀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H사가 납품했던 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도 뇌종양, 다발성경화증 등 희귀병이 집단 발병해, 피해자들이 산재를 신청하며 삼성에 책임 인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피해 노동자가 일한 현장은 십 수 년 전부터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경험한 현장과 많은 점에서 닮았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이 다루던 물질의 성분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는 위험마저 외주화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메틸알코올을 사용하다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3년 삼성전자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에서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H사 또한 삼성에 납품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삼성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를 바로잡고, 이들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4월 28일은 전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2,000여 명이 노동 재해로 사망하고 있고, 이마저도 상당수의 재해가 은폐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개악하여 산재 은폐를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업주, 이런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의 태도가 노동자들을 병들고 다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으며 투병중인 피해 노동자는 오늘 산재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노동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공단은 조속히 산재를 승인하여 피해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십시오!

공단은 전자산업 전반에 만연한 노동재해를 감시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이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4.28.

전자산업 백혈병 산재 인정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북시민사회단체(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민중연합당전북도당, 사회변혁당전북도당, 생명평화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6.15전북본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 전북노동복지센터,
전북녹색연합,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산재신청인 이○○ 님 편지

저는 2012년 1월 만28세의 나이에 전주 H사 전자재료팀에 입사하여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 발병 발견시기인 2015년 10월까지 근무한 이○○이라고 합니다.

당시 늦은 나이에 H사 정규직이라는 대기업에 일할 수 있다는 부푼 마음을 안고 고향을 떠나 홀로 먼 타지로 일을 하기위해 H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첫아이가 태어난 무렵부터 제품의 출하량이 급격히 늘었고 출하량이 늘었고 그 출하량을 맞추기 위하여 거의 자는 시간 외 에는 일만하였습니다. 생산량도 불규칙하여 작업자의 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12시간 근무가 잦았고,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시간 지속된 근무와 엄청난 작업량에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고 있었고 둘째아이를 가진지 4개월 만인 2015년 10월 중순부터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동네병원을 다니다 증세에 호전이 없었습니다. 피검사를 해보니 염증수치가 높아 회사에 쉬기를 요청하였으나 근무를 더하라는 말에 그날 야간근무를 마치고 종합병원에 입원하였고 하루 만에 염증수치는 더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입원 이틀 후 백혈병이 의심 되니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라는 말을 듣고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의 진단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라는 30대에 나이에 믿을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치료비와 주기적인 검사 비용도 엄청난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3살 된 딸과 이제 태어난 지 2주된 아들을 키워야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아빠로써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줘야 할 시기에 딸아이를 안기에도 힘이 떨어져 나도 모르게 힘에 부쳐 벌벌 떠는 제 손을 보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만 갑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었을 뿐인데 아이들 그리고 와이프 보기가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

앞으로 저는 저의 남은 인생의 절반이상을 그저 치료와 검사를 하며 일반인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꼭 산재로 인정받고 일평생 안고 살아야하는 이 병에 대한 치료만이라도 마음 편히 하여 아이들과 그저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과>

- 2012년 1월 5일 H사 입사
- 주로 전극보호용 방습절연제, 세정제 등을 생산
- 빛을 보면 경화되는 제품 특성 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했고, 환풍기를 가동해도 역한 냄새 심했음
- 2015년 경 부터는 감기 증상으로 병원 자주 찾음
- 2015년 10월 31일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 이상 판정
- 2015년 11월 2일 강남성모병원으로 이송
- 현재 항암치료 및 투병 중. 골수이식 수술 앞두고 있음

<산재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① 원료명과 양이 표시된 작업지시서 확인하고
② 각 화학약품을 용기에 담아 저울로 무게를 계량한 후
③ 계량된 화학약품을 반응기에 투입하고
④ 반응기에서 혼합완료 후 용기에 포장하였고
⑤ 포장 후에는 반응기를 세척

-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물질명은 정확히 알기 어려움. 2HEA, HDI, DOA, IDA, PETA 등 각종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산재신청인은 자신이 다룬 물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해 정보가 제한적임.
- 근무는 4조 3교대로 이루어짐.

<2014년 및 2015년 산재신청인의 연장근로시간표>

2014년	연장근로시간	2015년	연장근로시간
1월		1월	71.5시간
2월	57시간	2월	98.5시간
3월	32.5시간	3월	98시간
4월	104시간	4월	68시간
5월	66시간	5월	63시간
6월	53.5시간	6월	21시간
7월	104.5시간	7월	1시간
8월	116시간	8월	
9월	112.5시간	9월	64시간
10월	89시간	10월	60시간
11월	85시간	11월	
12월	106.5시간	12월	

<H그룹과 삼성그룹의 관계>

- H그룹은 1992년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된 H제지(옛 전주제지)를 모태로 만들어졌음.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가 H그룹 고문의 오너.
- H사는 삼성과의 협력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 H사에서 생산된 방습절연제, 세정제 등은 삼성전자 LCD사업부로 주로 납품되고 있음.
- 관련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H사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라인에 주요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공장이 증설되면 매출실적 증대.
- 산재신청인의 연장근로시간이 급격히 증가한 2014년 하반기는 삼성전자의 화성, 시안 공장이 증설되어 가동된 때임.